

주간 통일정세

2016-47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11.19	北 김정은 '공중침투 대비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 시찰(연합뉴스)
		北 '여맹' 명칭 65년 만에 변경...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연합뉴스)
		北, 11월 차대통령 실명 비난 하루 평균 16.4건(연합뉴스)
	11.20	北 김정은 軍수산사업소 또 시찰... "물고기 꺾차 기쁘다"(연합뉴스)
	11.21	北, 전쟁대비 김씨 일가 유물 초상화 대피 준비(연합뉴스)
	11.23	北, 체제선전용 SNS 계정 20여개... 홍보 효과는 별로(연합뉴스)
	11.24	류미영 北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사망(연합뉴스)
		'제네바서 미국 접촉 北최선희 베이징 거쳐 평양행(연합뉴스)
		北, 연평도포격도발 '승리' 주장하며 경축행사(연합뉴스)
		"北, 재외공관 당 간부 자택 수시 검열"(연합뉴스)
11.25	김정은 또 군부대 시찰... 이달 들어 여섯 번째(연합뉴스)	
	"北 유엔주재 차석대사 다음 달 교체... 장일훈 <박성일 유력"(연합뉴스)	
	北, '핵보유국' 거듭 강조... 핵동결협상 <평화협정 '사전작업'(연합뉴스)	
경제	11.25	북 중교역 본격 회복세... 10월 대북수입 28% ↑(연합뉴스)
사회 문화	11.19	北, USB·USIM칩 등 메모리 기기 등록제 실시(연합뉴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연합뉴스)
	11.20	北 전력 사정 악화로 해산·평양 철도 열흘 이상 결려(연합뉴스)
	11.21	北, 함경북도 수해지 살림집 1만1천900세대 복구 발표(연합뉴스)
		북한에 허가받은 상설시장 450개... 평남 최대(연합뉴스)
	11.22	北 최근 10년간 대규모 자연재해로 1천533명 사망(연합뉴스)
	11.23	중국계 기관차 2대 사고로 폐기되자 北 열차운행 취약상태(연합뉴스)
	11.24	"北주민 돈 되면 다 판다... 중서 김일성 배지 등 거래 급증"(연합뉴스)
11.25	"北 삼수댐 호수로 트럭 추락... 19명 사망"(연합뉴스)	
외교 국방	11.19	북미 제네바 '트랙2' 접촉 마무리... 北 다음 행보에 관심(연합뉴스)
		北, 美의 일방적 핵포기 주장은 납득 안 돼(연합뉴스)
	11.20	北석탄 수입시 중국에 '민생용' 입증의무 강화된다(연합뉴스)
	11.21	트럼프 국방장관 유력 매티스 면담서 '북한문제 논의(연합뉴스)
北 "美 적대시 정책 핵 위협으로 핵무장 선택" 주장(연합뉴스)		

11.22	北외무성 “美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 내려야”(연합뉴스)
	美전문가 "이란핵 재협상시도, 북핵대응에 악영향 가능성"(연합뉴스)
	美 의회보고서 "제재에도 북 중 경제관계 위축 가능성 작아"(연합뉴스)
11.23	백악관-트럼프 안보팀, 북핵문제 인수인계...“상세 브리핑 예정”(연합뉴스)
	北인사들, 작년 싱가포르서 ‘스타트업 창업 노하우 전수’(연합뉴스)
11.24	‘北·美 접촉 이인훈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파악 원해”(연합뉴스)
	“日 하네다공항서 北 공백여권 100개 반입시도 적발”(연합뉴스)
	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철회해야” 반발(연합뉴스)
	IMO, 사전통보 없는 北 미사일 발사 공개 규탄(연합뉴스)
11.25	말레이시아 당국자 “북핵문제 좀 더 관여하고 대화하길”(연합뉴스)
	한국·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 “北도발, 국제질서 훼손” 규탄(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11. 19.

■ 北 김정은, ‘공중침투 대비’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 시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군 여성방사포병사격대회를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상륙 지역에 공중강습하는 적직승기 육전대(해병대) 소멸을 위한 여성방사포병 중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통하여 여성방사포병들의 전투능력을 판정 및 확정하고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시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를 불의에 조직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밝힘.
- 김정은의 이번 시찰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명수 총참모장, 리영길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 박정천 포병국장 등이 수행함.

2016. 11. 20.

■ 北김정은, 軍수산사업소 또 시찰…“물고기 꺾차 기쁘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8월25일수산사업소’를 시찰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중앙통신인 김정은이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물고기잡이 및 저장실태, 공급실태에 대해 살펴봤다고 전함.
- 김정은은 “사업소구 내에 차넘치는 물고기 비린내를 맡으니 기분이 상쾌해진다”고 언급한 뒤 사업소 일꾼 및 종업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고 함.

2016. 11. 25.

■ 김정은, 또 군부대 시찰…이달 들어 여섯 번째(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80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면서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 리영길 동지가 동행하였다”고 25일 보도함.

- 김정은은 “대연합부대는 현대전의 공격과 방어에 다 준비된 강위력한 정예대로 자라났다”면서 “부대가 지키고 있는 방어진지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고 말함.
- 김정은은 이 부대가 빈틈없는 훈련 준비를 하면서 적들의 작전전술 변화를 깊이 연구하고 있으며, 함경북도 대규모 홍수 피해지에 급파돼 수해 복구에도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11. 24.

■ 류미영 北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장 사망(연합뉴스)

- 통신은 “류미영 선생은 민족의 융성 번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애국적인 정치활동가”라며 “남조선과 해외를 방황하다가 남편 최덕신 선생과 함께 공화국에 영주하여 보람있는 삶을 누리었다”고 소개함.
- 이어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 수행에 이바지한 공로로 하여 김일성 훈장과 김정일 훈장을 받았으며 조국통일상과 많은 국가표창을 받았다”고 전함.
- 1976년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한 류미영은 1986년 월북해 그해 북한 영주권을 취득했음.

■ ‘제네바서 미국 접촉’ 北최선희 베이징 거쳐 평양행(연합뉴스)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선희 국장은 지난 17일부터 미국 측과 제네바에서 '트랙 2(민간채널 접촉) 대화를 한 뒤 22일 베이징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 머물다가 24일 고려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오름.
- 이 소식통은 “최선희 국장이 22일 제네바에서 경유지인 베이징에 왔다가 오늘 귀국했다”면서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측 인사와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앞서 최선희 국장과 장일훈 북한 유엔 차석대사는 제네바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조엘 위트 연구원 등 미국 측 민간 전문가 4명과 만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2016. 11. 25.

■ **“北 유엔주재 차석대사 다음 달 교체…장일훈→박성일 유력”(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의 대화창구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다음 달 교체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5일 미국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VOA는 미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현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장일훈 차석대사가 다음 달 평양으로 돌아가고 북한 외무성 박성일 미주국 부국장이 후임으로 부임한다”고 전함.
-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의 정권 교체 시기에 북미 대화창구인 ‘뉴욕채널’을 교체한다는 것은 기존의 대미 정책에 변화를 주겠다는 चे스처로 보인다”며 “이번 인사는 북미 제네바 접촉 등을 통해 최근 적극적인 자세로 미국과 접촉을 시도하는 북한 측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함.

다. 공식행사

2016. 11. 24.

■ **北, 연평도포격도발 ‘승리’ 주장하며 경축행사(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선군조선의 백승의 역사에 특기할 연평도 포사격 전투승리 6돌 기념 군민련환(경축)모임이 23일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진행되었다”고 24일 보도함.
- 리성국 인민군 제4군단장은 연설에서 “연평도 포사격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의 무적의 기상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선군조선의 역사에 자랑찬 전승의 한 페이지(페이지)를 역력히 아로새긴 일대 사변이었다”고 주장함.
- 행사에는 박영호 황해남도 당 위원장, 김봉현 강령군 당 위원장, 포격도발에 관여했던 리현명 군관 등이 참석함.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11. 19.

■ **北, ‘여맹’ 명칭 65년 만에 변경…‘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여맹 제6차 대회(17~18일)에서 여맹의 명칭을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으로 변경하는 결정서가 18일 채택됐다고 보도함.
- 65년 만에 바뀐 명칭은 ‘민주’를 빼고 ‘사회주의’를 내세운 것이 특징임.

- 북한 노동당의 외곽 단체인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돼 1951년 1월 20일 남북의 여성동맹이 통합되면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이름이 1차 변경된 바 있음.

2016. 11. 21.

■ 北, 전쟁대비 김씨 일가 유물·초상화 대피 준비(연합뉴스)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7일 “최근 도 사적관에 비치된 김일성 관련 사적물에 대한 유사시 대피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적물 대피 장소와 사적물 운반에 필요한 자재들까지 자세히 하달됐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이 소식통은 “함경북도 청진시 도 사적관의 사적물은 유사시에 청암구역 문화동에 마련된 지하 동굴에 보관하도록 지정됐다”며 “중앙에서는 주민들에게 사적물 대피과정에서 필요한 자재와 운반수단까지 도내 주민들이 자체로 해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사적물 보관대책에 대한 중앙의 지시가 이달 초 전달됐다”며 “세대당 5천 원씩 사적물 보관 지원금으로 거두는 것 외에도 세대별 초상화 보관함도 따로 마련해 반장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2016. 11. 23.

■ 北, 체제선전용 SNS 계정 20여개…홍보 효과는 별로(연합뉴스)

- 북한 선전용 인터넷 매체인 ‘조선의 오늘’ 등을 비롯해 현재 운영되는 SNS 계정 24개 중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쿠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미국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전함.
- 매체별로는 조선의 오늘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우리민족끼리 7개, 메아리 4개, 우리민족 강당 3개 등 순임.
- VOA는 “북한 매체들은 SNS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트위터는 단문 형태의 글로, 유튜브와 유쿠는 북한이 제작한 동영상, 인스타그램이나 플리커는 북한 매체의 보도사진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소개함.

2016. 11. 24.

■ “北, 재외공관·당 간부 자택 수시 검열”(연합뉴스)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 내 북한 공관에는 보위부(국가안전보위성)에서 파견된 성원(관계자)들이 외교관 자격으로 근무하면서 상시로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한 달이 멀다 하고 평양에서 검열 요원을 파견해 보안 검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RFA는 밝힘.
- 이 소식통은 “평양에서 출장을 나와 공관의 보안상태를 검열하는 이들 요원은 숙련된 IT 기술자들”이라면서 “내부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관 내 컴퓨터망과 통신 시설물에 대한 검열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은 재외공관 검열뿐만 아니라 무역 주재원들의 사무실 등도 1년에 몇 차례씩 검열한다”면서 “검열요원들이 매번 올 때마다 구성원이 바뀌는데, 와서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일 것”이라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11. 19.

■ 北, 11월 박대통령 실명 비난 하루 평균 16.4건(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의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 보도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급증한 것으로 18일 전해짐.
- 통일부가 이달 들어 16일까지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을 분석한 결과, 이들 3개 매체의 하루 평균 박 대통령 실명 비난 보도는 16.4건이었고, 이들 매체의 하루 평균 박 대통령 실명 비난은 올해 2월 1.5건에서 3월 8.9건, 4월 7.1건으로 늘었다가 5월 1.1건, 6월 2.4건으로 감소함.
- 미국의 소리(VOA) 방송도 이날 북한 노동신문은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기사를 모두 102건 보도했고, 그 내용은 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 대통령 비난과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 전국 각지에서 열린 대통령 하야 집회 등이라고 전함.

2016. 11. 25.

■ 北, ‘핵보유국 거듭 강조…핵동결협상→평화협정 ‘사전직업’(연합뉴스)

- 북한 관영매체가 미국 대선 이후 보름간 세 차례나 ‘핵 강국’을 자칭하며 자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함.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5일 ‘전략적선택을 심중히 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 속에서 조선의 핵보유와 그 질적 강화는 엄연한 현실이며 다음 행정부가 이것을 인정한 기초우(위)에서 대조선정책을 심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함.
- 북한의 이 같은 행보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각인시키려는 포석으로 보임.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11. 25.

- **북중교역 본격 회복세...中 10월 대북수입 28%↑(연합뉴스)**
 - 북·중 교역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전날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간 10월 무역총액은 5억2천 52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증가함.
 - 특히 중국이 북한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은 2억3천838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에 달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도 16.1% 늘어남.
 - 이로써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북·중 교역은 8월 들어 증가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 증가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11. 19.

■ 北, USB·USIM칩 등 메모리 기기 등록제 실시(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 정보의 차단을 위해 개인 소유의 USB나 USIM칩과 같은 메모리 기기에 대한 등록제도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최근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체 손전화(핸드폰)와 각종 메모리 장치들을 ‘620 상무’에 등록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국의 각 동사무소에 내려졌다”고 전함.
- 소식통은 북한에서 불법 영상물과 한국음악을 즐길 수 있는 태블릿이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 많아 이들을 통해 외부의 정보가 북한 내부에 계속 유통되는 것으로 보고 당국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함.

■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연합뉴스)

-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22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에서 연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세미나’에서 북한법 전문가인 한 명섭 변호사(통인법률사무소)는 “북한도 영토에 대한 인식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힘.
- 한 변호사는 ‘북한의 독도 영유권 인식과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반면 북한의 헌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영토조항은 없지만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중략)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함.
- 독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오래전부터 ‘조선의 섬’, ‘조선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한 변호사는 소개함.

2016. 11. 21.

■ 北, 함경북도 수해지 살림집 1만1천900세대 복구 발표(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혹심한 재난의 파도가 휩쓸었던 조선의 북변 땅에 1만1천

900여 세대의 살림집들이 불과 2개월만에 일떠섰다”면서 “북부피해지역 인민들의 살림집 입사모임들이 19일과 20일 현지에서 각각 진행되었다”고 21일 보도함.

- 이 자리에는 최룡해·김기남·최태복·리수용·김평해·리만건·오수용·곽범기·김영철 등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이 축하연설후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살림집 이용증서가 수여됐다고 통신은 밝힘.
- 이후 당 중앙위 부위원장들은 회령시와 무산·연사·온성·경원·경흥군의 새 살림집에 입주한 가정들을 방문했다고 통신은 전함.

2016. 11. 23.

■ 중국제 기관차 2대 사고로 폐기되자 北 열차운행 최악상태(연합뉴스)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북한은 전력사정으로 2012년 겨울부터 평양과 국경을 잇는 기본 철도노선 3곳(평양-혜산행, 평양-두만강행, 평양-신의주행)에 총 6대의 중국산 중고 디젤기관차를 도입했다”면서 “이 가운데 2대는 수해현장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폐기됐다”고 말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수해복구에 동원된 내연(디젤)기관차들이 제대로 정비를 받지 못한 채 복구 작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당분간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지난 2일 오전 회령시 송학리 부근 굽인돌이(커브길)에서 열차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며 “당시 내연기관차는 수해복구에 쓰일 채석과 화물을 싣고 있어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관사들은 모두 사망했다”고 말함.

나. 시장관련

2016. 11. 21.

■ 북한에 허가받은 상설시장 450개…평남 최다(연합뉴스)

-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설시장이 약 450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음.
- 북한개발연구소 문영순 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연구소 주최 ‘북한의 시장화 : 현황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함.

- 문 연구원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인공위성 사진 분석과 탈북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고, 이는 통일연구원이 지난 10월 탈북자들과 함께 위성사진을 분석해 확인한 수치라며 내용은 398개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집계한 406개보다 많았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11. 20.

■ 北 전력 사정 악화로 혜산-평양 철도 열차 운행 이상 걸려(연합뉴스)

- 북한의 전력 사정이 악화하면서 양강도 혜산시에서 평양까지 열차로 열흘 이상 걸리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일본 매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혜산시의 소식통은 아시아프레스에 “현재 열차 운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24시간이면 도착하는 혜산과 평양 간 열차가 지금은 열흘 이상 걸려 타는 사람이 없다”고 말함.
- 함경북도 무산군의 소식통도 “전력 사정이 나빠진 지난 10월 중순부터 열차가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고 무산을 출발해 평양에 가는 열차도 열흘 이상 걸린다”고 전함.

2016. 11. 22.

■ 北 최근 10년간 대규모 자연재해로 1천533명 사망(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자연재해로 총 1천533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벨기에 루뱅대학 재난역학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재난 통계 분석 보고서’와 ‘재난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 2007년 이후 총 10건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함.
- 이 가운데 7건이 홍수였으며, 2007년과 올해 홍수로만 각각 610명, 5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RFA는 전함.

2016. 11. 24.

■ **“北주민, 돈 되면 다 판다…中서 김일성 배지 등 거래 급증”(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북한의 2009년 화폐 개혁 이전에 사용된 5천원짜리 구권 지폐가 100장에 65 위안(약 1만1천원) 정도에 팔리고 있음.
- 북한 구권 지폐는 이전에도 북·중 국경 지역에서 관광품으로 판매됐지만, 소식통은 최근 인터넷에서 거래되는데 대해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대량 거래되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북한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가 들어간 지폐나 배지가 이처럼 거래되는 것에 대해 “경제난을 배경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주민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함.

2016. 11. 25.

■ **“北 삼수댐 호수로 트럭 추락…19명 사망”(연합뉴스)**

- 북한 양강도 혜산시 삼수발전소 댐 호수로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추락해 탑승자 19명 전원이 숨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지난 18일 삼수발전소 인근을 달리던 컨테이너 트럭이 전날 내린 폭설에 미끄러져 호수로 굴러떨어지면서 운전사와 돌격대원(북한의 건설노동조직 구성원) 등 탑승자 19명이 모두 숨짐.
- 이들은 함경북도 연사군 수해 복구 현장에 동원됐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짐.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11. 19.

■ **북미 제네바 ‘트랙2’ 접촉 마무리…北 다음 행보에 관심(연합뉴스)**

- 북한 당국과 미국 대북 전문가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트랙2(민간채널 접촉)’ 대화를 마무리함.
- 19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와 최설희 외무성 국장은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조엘 위트 연구원 등 미국 측

민간 전문가 4명과 대화를 마무리 짓고 제네바를 떠날 것으로 알려짐.

- 외교가에서는 양측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북한이 꺼낼 수 있는 카드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북측이 보일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 北, 美의 일방적 핵포기 주장은 납득 안 돼(연합뉴스)

- 북한은 19일 최근 윌리엄 페리(89) 전 미국 국방장관이 강연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위험하고 바보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을 평가하며 미국을 향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대세에 맞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구태의연한 대(對) 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세의 흐름과 정세발전에 부합되게 대조선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통신은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고 조미(북미)가 여전히 교전 상태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 수 없다”고 주장함.

2016. 11. 21.

■ 트럼프, 국방장관 유력 매티스 면담서 ‘북한문제’ 논의(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초대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인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과의 지난 19일(현지시간) 면담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정권 인수위원회가 밝힘.
- 인수위는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매티스 전 사령관을 뉴저지 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만난 사실을 전하면서 “진짜배기(real deal)이자 미국의 영웅인 매티스와의 회동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전함.
- 또 “두 당선인과 매티스 전 사령관은 국가안보에 관한 계획들을 놓고 엄청나게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며 “그 대화 내용에는 이슬람국가(IS)와 중동, 북한, 중국, 나토, 그리고 세계의 다른 분쟁지대들이 포함됐다”고 함.

■ 北 “美 적대시 정책·핵 위협으로 핵무장 선택”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1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 선택했다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함.
- 북한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A4용지 9매 분량의 비망록을 통해 “(북한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국가와 체도를 보위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핵무장의 길을 선택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비망록은 “미국은 달라진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똑바로 보고 시대착오적인 대(對)조선(북한) 적대시 정책과 우리에게 대한 핵 위협을 철회할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고 덧붙임.

2016. 11. 22.

■ **北외무성 “美, 적대시 정책 철회 용단 내려야”(연합뉴스)**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 문답을 통해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는 미국이 달라진 우리(북한)의 전략적 지위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함.
- 대변인은 “다시 한 번 명백히 하건대 미국의 력대집권자들이 추구해온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이야말로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근원이며 우리를 핵보유어로 떠민 근본요인”이라며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유린말살하려는 미국의 책동이 로골화될수록 그것은 우리의 자력자강의 정신과 핵무력 강화 의지만을 더욱 굳세게 하여줄 뿐”이라고 말함.
- 그는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차레진 것보다 더 비참하고 쓰디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美전문가 “이란핵 재협상시도, 북핵대응에 악영향 가능성”(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가 이끌 차기 미국 정부에서 이란 핵협상이 재협상 대상이 되거나 심한 경우 폐기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 핵협상의 재협상 시도조차도 앞으로 있을 미국 정부의 북한 핵문제 대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 정책연구기관 스티븐슨센터의 공동창업자 마이클 크레폰은 21일(현지시간)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이란과의 합의에 대해 재협상에 나서려는 (미국 정부의) 시도는 북한 문제에 대응할 미국 정부의 입장을 두 가지 측면에서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크레폰은 “북한이 앞으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적절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될 것”을 그런 주장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했고, 북한 핵문제

를 놓고 다른 나라들과 공동 협상을 할 때 “통일된 입장을 형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근거라고 설명함.

2016. 11. 23.

■ **백악관-트럼프 안보팀, 북핵문제 인수인계…“상세 브리핑 예정”(연합뉴스)**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현재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안보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어니스트 대변인은 “트럼프 안보팀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 온 대북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인과 동맹 보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모든 군사적 조치, 대북 추가제재를 위한 우리의 성공적 노력, 대북압박을 위한 미 재무부의 금융적 조치, 정보당국의 북핵 평가 등에 대해 상세히 얘기하고 브리핑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다만 “궁극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향후 어떤 대북정책을 취할지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몫”이라고 언급함.

2016. 11. 24.

■ **‘北·美 접촉’ 아인혼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파악 원해”(연합뉴스)**

- 아인혼 전 특보는 제네바에서 최섉희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대표단과 만나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 측 대표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RFA에 전함.
-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없었고,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임.

나. 북·중 관계

2016. 11. 22.

■ **美 의회보고서, 제재에도 북·중 경제관계 위축 가능성 작아(연합뉴스)**

-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가 향후 위축될 가능성은 작다는 미국 의회 산하 기구의 보고서가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2일 보도함.
-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1%에 달하는 등 북한경제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함.
- 보고서는 “특히 노동자 해외 송출이 최근 북한의 새로운 외화 획득원으로 떠올랐다”면서 “앞으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봄.

다. 북·일 관계

2016. 11. 24.

■ “日 하네다공항서 北 공백여권 100개 반입 시도 적발”(연합뉴스)

- 신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하네다공항 세관이 관세법에 따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의 수하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함.
- 조선총련에서 재일동포의 일시귀국 업무를 하는 이 남성은 당시 중국 베이징(北京)을 거쳐 재입국한 상태임.
- 세관은 여권이 대북제재에 따른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경제산업성에 확인한 결과 인도적 목적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뒤 이를 압류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11. 20.

■ 北석탄 수입시 중국에 ‘민생용’ 입증의무 강화된다(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막바지 논의 중인 신규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 등의 북한산 석탄 수입 시 '민생용'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20일 알려짐.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한산 석탄 교역과 관련해 수입국의 '민생용'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 소식통은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측에서 '민생목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최대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안다”고 말함.

- 이는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수입하는 쪽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만큼 사실상 중국에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2016. 11. 23.

■ **北인사들, 작년 싱가포르서 ‘스타트업 창업’ 노하우 전수(연합뉴스)**

- 싱가포르 정부 산하 국영 벤처캐피털인 인포콤 인베스트먼트(Infocomm Investments) 관계자는 23일 현지를 방문한 연합뉴스 등 외교부 출입 기자단에 “지난해 9월부터 북측 인사 4명이 4개월 동안 머물며 BASH의 창업보육 지원 전체 과정을 체험했다”고 말함.
- 이들 북측 인사들은 국가과학원 소속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짐.
- BASH는 인포콤 인베스트먼트가 약 2년 전부터 운영해온 스타트업 양성 기관이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무상으로 멘토링과 사무실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함.

2016. 11. 24.

■ **北,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철회해야” 반발(연합뉴스)**

-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는 이날 발표한 공개질문장을 통해 “지난 15일 유엔총회 제71차 회의 3 위원회는 ‘북 인권 결의안’이라는 것을 강압 채택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조선인권연구협회는 1992년 설립된 이후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해 옴.
- 이 단체는 “우리는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유엔 기구의 그 어느 성원이든 우리나라에 찾아와 참다운 인권 실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할 것을 권고한다”며 “(유엔은) 모략 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깎아내려 보려는 어리석은 시도와 결별하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음.

■ **IMO, 사전통보 없는 北 미사일 발사 공개 규탄(연합뉴스)**

-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전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행위를 공개 비난함.

- 지난 21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개막한 IMO 해상안전위원회(MSC)는 둘째 날 이런 내용을 담은 회람문서(circular)를 논의한 데 이어 25일 정식 채택할 예정임.
- 회람문은 IMO 회원국인 북한이 울들어 37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주변을 향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미리 알리는 항행안전 사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을 위반했다고 지적함.

■ 말레이시아 당국자 “북핵문제 좀 더 관여하고 대화하길”(연합뉴스)

- 샤하피즈 과장은 지난 21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아세안 사무국에서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록 그 범위가 매우 작더라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통로”라고 덧붙임.
- 샤하피즈 과장은 “일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세안은 대화를 통한 교류를 중시한다”고 강조함.
- 또 지난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진행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 전직 당국자들의 대화에 대해 논평을 요구받자 “우리는 배제하기보다는 (대화의 틀에) 포함시킨다는 원칙이 있다”며 “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물리적 충돌보다 낫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힘.

2016. 11. 25.

■ 한국·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 “北도발, 국제질서 훼손” 규탄(연합뉴스)

- 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는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국제적 의무 위반은 므타가 수호하고자 하는 유엔 헌장을 근간으로 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한다”고 규탄함.
- 므타 회원국들은 이날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8차 므타 외교장관회의’ 결과문서인 공동성명(공동 코뮤니케)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함.
- 외교부는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자체를 훼손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사례”라며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더욱 널리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 특이사항 없음

Ⅱ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11.20	조태용 “美 엄정한 자세로 대북정책 입안 할 것”(연합뉴스)	
	11.21	송민순 “한미 협의하면 3년 내 작전권 전환 가능”(연합뉴스)	방미 의원단 “트럼프, 北강력제재부터 대 화까지 폭넓게”(연합뉴스)
		외교부 “美 새정부 출범후에도 대북제재 압박기조 유지”(연합뉴스)	
	11.22	방사청장 “트럼프 정부 방위비 인상 요구 하면 수용할 수밖에”(연합뉴스)	美CSIS 햄리 소장 “주한미군은 미국약에 중요한 역할”(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11.21	민주평통, 중국에 ‘北위협 사라지면 사드 철수하겠다’ 설명해야(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11.21	한일, 이르면 주중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연합뉴스)	
			日관방 “韓검찰 수사 발표, 한일중 정상회담에 영향 없어”(연합뉴스)
	11.22	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11.23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에서 체결까지… 韓제안 27년 만에 매듭(연합뉴스)	日외무상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원활한 정보교환 기대”(연합뉴스)
	11.24	외교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안보정세에 영향없을 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11.21		차관영매체 “중국, 미국 대신 세계 주도 못 해” 주장 눈길
	11.22		시진핑, 페루에 선물보따라...美 ‘뒷마당’ 중남미 공략가속(연합뉴스)
	11.24	교도통신 “美中, 안보리 대북제재 큰 줄기 합의”(연합뉴스)	中, ‘안보리 대북제재 큰 줄기 합의’에 “美中 논의 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11.23		히야베, 트럼프 손잡았지만...TPP 영토문제 속속 재동결려(연합뉴스)
	11.25		히야베, 美트럼프 뒤통수 맞고도 “신뢰한다”...TPP도 계속 추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11.21	오바마·푸틴, APEC서 4분간 ‘깜짝회동’...美 시리아 평화 촉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11.21		히야베, 시진핑 만나 내달 한일-중 정상회의 중참석 요청(연합뉴스)
	11.22	중국, 샌키쿠 영유권 주장 가속화...과거 문헌 지도 공개(연합뉴스)	
	11.25		日, 특혜관세 대상서 중국 제외...“경제 발전했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11.25	“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에 미중 합의...러시아가 지연”(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11.21		푸틴, ‘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주권 영토(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11. 20.

■ 조태용 “美, 엄정한 자세로 대북정책 입안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과 정책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미국이) 북한에 엄정한 자세로 정책을 입안하게 될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 단장인 조 1차장은 이날 귀국 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북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를 거스르는 불법적인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조 1차장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비핵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대화 모멘텀이 없다는 생각”이라며 “오바마 행정부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참여한 인사들도 기본적으로 생각이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6. 11. 21.

■ 방미 의원단 “트럼프, 北강력제재부터 대화까지 폭넓게”(연합뉴스)

-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 강력한 제재부터 대화까지 다양하게 시도하며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봄.
- 지난 14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캠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관계·북핵전략·통상정책과 관련된 방미 결과를 보고했음.
-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 측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질적으로 북한 핵 능력을 증강시켰고, 결국 성공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워싱턴은 북핵문제를 단순한 한반도 문제라기 보다 본인들의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했음.

■ 송민순 “한·미 합의하면 3년 내 작전권 전환 가능”(연합뉴스)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21일 “한·미 양국이 합의만 하면 3년 이내에

- 작전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송 총장은 22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59차 IFES 통일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기초 발제문에서 “한국은 2006년부터 3년간 한·미 연합훈련을 주도하면서 작전권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 2006년 합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었던 송 총장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에 대한 관여축소를 가속할 것이라며 “한국이 자기 군대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이런 조류에 맞춰 순항할 수 있다”고 지적함.

2016. 11. 22.

■ 외교부 “美 새정부 출범후에도 대북제재·압박기조 유지”(연합뉴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확고한 ‘북핵 불용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강력한 대북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최근 우리 정부 대표단의 방미 활동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앞으로도 차기 미국 행정부 측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조 대변인은 북한이 전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에 따른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선택했다는 주장을 담아 발표한 외무성 비망록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에 미측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함.

■ 방사청장 “트럼프 정부 방위비 인상 요구하면 수용할 수밖에”(연합뉴스)

-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수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함.
- 방미 중인 장 청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방사청 등이 공동 후원한 ‘한·미 국방 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 환경’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차기 미국 정부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장 청장은 그러나 현 국방예산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축소해 무기 고도화 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설명함.

■ **美CSIS 험리 소장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요한 역할”(연합뉴스)**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험리 소장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주한미군이 마치 한국을 위해서만 나가 있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함.
- 험리 소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CSIS와 한국 방위사업청 등이 공동후원한 ‘한·미 국방획득 정책과 국제 안보환경’ 콘퍼런스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전략적인 이유로 나가 있는 것이지 한국 방위만을 위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함.

나. 한·중 관계

2016. 11. 21.

■ **민주평통, 중국에 ‘北위협 사라지면 사드철폐하겠다’ 설명해야(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1일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항해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입장을 밝힘.
- 민주평통은 2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6년 3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대해 사드 배치는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불가피한 정책적 선택임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런 입장을 내놓음.
-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동북아 차원에서 군비축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시범적·선도적 조치로서 사드 철수도 가능성을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고 말함.

다. 한·일 관계

2016. 11. 21.

■ **한·일, 이르면 주중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르면 주중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공식 체결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22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 와 각의(일본의 국무회의)에서 각각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의결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일정을 잡아 서울에서 정식 체결하는 방안을 조율 중임.
- 서명은 한국 측에서 한민구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각각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협정의 명칭에 ‘군사’ 라는 단어를 넣어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정의 문안은 2012년 추진 당시와 거의 같으나 일본에서 2013년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을 반영해 협정 문안에 ‘특정비밀’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들어갈 것으로 알려짐.

■ **日관방 “韓검찰 수사 발표, 한일중 정상회의에 영향 없어”(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 “이번 사안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21일 말함.
-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 씨 등 3명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관계라고 밝힌 전날 검찰 수사 발표에도 한·일·중 정상회의가 예정대로 열릴 것이냐는 질문에 “본건은 한국 내정에 관한 문제로 일본 정부로서는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이같이 답함.
- 일본 정부는 내달 19~20일 도쿄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짐.

2016. 11. 22.

■ **정부, 국무회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

-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의결함.
- 서명은 23일 국방부에서 이뤄지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에 참여할 것임.
-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됨.

2016. 11. 23.

■ **한·일정보보호협정 추진에서 체결까지…韓제안 27년 만에 매듭(연합뉴스)**

- 정부에 따르면 GSOMIA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89년 1월 군사적 필요성에 따라 우리가 협정 체결을 먼저 일본에 제안함.
- 이런 배경 속에 지난 9월 7일 라오스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GSOMI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함.
- 이어 11월 1일과 9일 도쿄와 서울에서 2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마치고 14일에는 양국이 협정안에 가서명을 했고, 23일 협정은 체결됨.

■ **日외무상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로 원활한 정보교환 기대”(연합뉴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3일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과 관련해 “한일 정부 간에 더 원활하고 신속한 안보 관련 정보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함.
- NHK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미야기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협정 체결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기시다 외무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일 안보 분야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임.

2016. 11. 24.

■ **외교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안보정세에 영향 없을 것”(연합뉴스)**

- 외교부는 한일 정부간에 23일 체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역내(동북아 등 한반도 주변 지역내) 안보 정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힘.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한·일 GSOMIA는 체결 국가 간의 군사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술적 성격의 협정”이라며 이같이 말함.
-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이미 미국 및 러시아를 포함해 32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중국 측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에 이어서 올해 10월에도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다시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11. 21.

■ 中관영매체 “중국, 미국 대신 세계 주도 못해” 주장 눈길

- 중국 관영 매체가 미국의 세계 지도자 자리를 중국이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음.
-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입지에 변함이 없겠지만 이를 지속하기 위해선 급부상하는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고 있음.
- 21일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세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사평에서 일부 서구 매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페루 리마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놓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전함.

2016. 11. 22.

■ 시진핑, 페루에 선물보따리…美 ‘뒷마당’ 중남미 공략가속(연합뉴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페루에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며 미국의 ‘뒷마당’ 격인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2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서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무역, 광업, 공업단지, 통신 등 총 18건의 협력협정을 체결하며 페루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함.
- 중국이 중남미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확장, 인프라 건설, 풍부한 중남미의 자원 확보 등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미도 담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2016. 11. 24.

■ 교도통신 “美-中, 안보리 대북제재 큰 줄기 합의”(연합뉴스)

- 교도통신은 미국이 중국에 요청한 석탄 등 북한산 광물자원의 거래 규제 강화

등에서 양국 간 의견 접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이 초안에 동의함에 따라 정채됐던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 미국과 중국은 다른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도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해온 러시아가 제재 결의 초안의 일부에 대해 난색을 표함.
-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졌다고 해도 제재 결의가 채택되기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中, '안보리 대북제재 큰 줄기 합의실'에 "美·中 논의 중"(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초안에 대해 큰 줄기에서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중국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공개를 꺼림.
- 이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해 미·중간에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나 러시아 등 다른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사전 동의도 구해야 하는 등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임.
- 경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견 접근이 이뤄졌으나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자 "유엔 안보리의 관련 상임이사국들이 새로운 북한 관련 결의 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만 밝힘.

나. 미·일 관계

2016. 11. 23.

■ 디아베, 트럼프 손잡았지만...TPP·영토문제 속속 제동걸려(연합뉴스)

- 아베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인 지난 17일 미국 뉴욕의 트럼프 자택으로 달려가 90분간 회담함.
- 그러나 두 사람의 신뢰는 며칠 만에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아베 총리와의 '신뢰와 우정'을 강조했던 트럼프의 행보가 아베 총리가 공들여 온 현안들에 속속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며,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문제가 대표적임.

2016. 11. 25.

■ **日 사드 도입 ‘속도’…방위상 “도입하면 국가 능력 강화”(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25일 와카미야 겐지 방위성 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 내년 여름까지 사드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와다 방위상은 다음 달 중순 미국령 괌을 방문해 사드를 시찰한 뒤 시찰결과를 검토위원회의 논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임.
-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장비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능력 강화에 연결될 것”이라고 사드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 **日아베, 트럼프 뒤통수 맞고도 “신뢰한다”…TPP도 계속 추진(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이 공을 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 뜻을 재차 밝혔는데도 그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이며 TPP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음.
-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뉴욕으로 달려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난 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지만 정작 트럼프는 4일 후 공개된 영상에서 TPP 탈퇴 의사를 분명히 밝힘.
- 2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전날 열린 참의원 TPP 특별위원회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해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비준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다. 미·러 관계

2016. 11. 21.

■ **오바마·푸틴, APEC서 4분간 ‘깜짝회동’…美, 시리아 평화 촉구(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 시리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평화정착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함.
-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4분간 만나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으며, 두 정상은 보좌진을 대동한 채 서서 대화를 주고받은 후 악수를 하고 자신들의 자리에 착석함.
-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평화를 위한 ‘민스크 협정’을 온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함.

라. 중·일 관계

2016. 11. 21.

■ 아베, 시진핑 만나 내달 한·일·중 정상회의 中참석 요청(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수도 리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다음 달 일본에서 개최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의 참석을 요청함.
- 그러나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전했고, 아베 총리는 이날 APEC 정상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시 주석과 10여 분간 만나 “내년 국교 정상화 45주년, 내후년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을 맞아 중·일 관계를 전면 개선하고 싶다”고 말함.
- 아베 총리는 “연내 개최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중·일 두 나라 관계에서도 성과가 많은 방문이 됐으면 한다”며 “현안을 적절히 처리하면서 대승적 관점에서 안정적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고 강조함.

2016. 11. 22.

■ 중국, 센카쿠 영유권 주장 가속화…과거 문헌·지도 공개(연합뉴스)

- 22일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류장용 칭화대 교수는 최근 센카쿠 열도가 중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다오위다오 열도 귀속 고증’이라는 책자를 펴냄.
- 이 책은 60여만 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구성됐으며 220여 편의 과거 문헌과 지도 사진이 부록으로 실려 있음.
- 중국은 지난 9월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항저우에서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도 센카쿠 순찰을 계속해 일본의 반발을 사고 있음.

2016. 11. 25.

■ 日, 특혜관세 대상서 중국 제외…“경제 발전했다”(연합뉴스)

-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이 집권하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터라 앞으로 통상 분야에서 미·일의 대중 포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해당국의) 경제가 발전했으니 관세를 우대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함.

마. 중·러 관계

2016. 11. 25.

■ “안보리 북한제재결의안에 마중 합의…러시아가 지연”(연합뉴스)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끝나고 러시아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옴.
- 로이터 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안보리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제재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으며, 다른 3개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넘겨졌다고 보도함.
-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경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상임이사국들이 새로운 초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다”고만 밝힘.

바. 일·러 관계

2016. 11. 21.

■ 푸틴, ‘러일 영유권 분쟁’ 쿠릴 4개 섬은 러시아 주권 영토(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러시아 주권이 있는 영토”라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페루 수도 리마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일본과 러시아 간 평화조약 체결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다”며 이같이 말함.
- 이는 영토 문제를 포함해 러·일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 중인 일본 측에 영토에 대한 주권은 러시아에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11.19	유럽탈북민들 ICC총회서 김정은 ICC 회부 문제 논의해야(연합뉴스)
	11.20	러 파견 北노동자, 건설현장서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져(연합뉴스)
	11.21	北인권 유엔 전문가그룹 방한...책임규명 방안 모색(연합뉴스)
	11.22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당국과 연락채널 마련에 노력할 것”(연합뉴스)
	11.23	“국제가톨릭기구, 北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연합뉴스) 유엔 특사 “킬링필드’ 전범 단죄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연합뉴스)
	11.24	앰네스티 “북한 정치범수용소 계속 운영”(미국의소리)
	11.25	北인권 유엔전문가그룹 “방북요청에 대한 北답변 기다린다”(연합뉴스) 탈북자 박지현씨 “끓은 상처 터지듯 인권탄압 북한에 변화올 것”(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11.19	北서 어린이 강제노동 심각...건설현장 돌개기에 10代 투입(연합뉴스)
	11.23	北, 독일 구호단체에 수해지역 진료소 건립 요청(연합뉴스)
	11.24	北 외무성 국장, 스웨덴 대사와 임현수 목사 문제 토의(연합뉴스)
	11.25	탈북시도 주민 2명, 두만강서 국경경비병 총격에 사망(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11.23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 3명 추가확인...총 19명으로 늘어(연합뉴스)
대북지원	11.19	국제사회, 北 수해복구에 1천300만 달러 지원(연합뉴스)
	11.22	프랑스 NGO, 북한서 15억원 규모 새 영양개선 사업(연합뉴스)
		유진벨재단 3주간 방북...12개 결핵센터 모두 방문 예정(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11. 19.

■ 유럽탈북민들, ICC총회서 김정은 ICC 회부 문제 논의해야(연합뉴스)

- 유럽 탈북민 단체들은 18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5차 당사국총회가 열리고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 앞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민 인권유린을 폭로하는 사진을 전시하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ICC 회부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재유럽탈북민총연합회(회장 장만석)와 네덜란드체류조선인망명자협회(회장 신석철)를 주축으로,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북한자유주간 이벤트의 하나로 열림.
- 탈북민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이 70여 년간의 독재 치하에서 세계 최악의 빈곤국가이자 인권탄압국으로 전락했으며,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회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UN과 EU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2016. 11. 20.

■ 러 파견 北노동자, 건설현장서 콘크리트 벽에 깔려 숨져(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19일 저녁(현지시간) 모스크바 북서부 베르자리나 거리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 있던 콘크리트 방화벽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노동자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지상의 컨테이너 박스를 덮쳤음.
- 이 사고로 컨테이너 안에 있던 북한 노동자 1명이 현장에서 압사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당국이 전함.
- 북한 노동자들은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 근로자들의 잦은 사망 사고는 현지 건설업체들의 안전 규정 위반이나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들의 무리한 작업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2016. 11. 21

■ 北인권 유엔 전문가그룹 방한...책임규명 방안 모색(연합뉴스)

-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유엔 전문가그룹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아 21일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함.
- 외교부 등에 따르면 소냐 비셰르코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과 사라 후세인 변호사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이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함.
- 이들은 지난 16일부터 방한 중인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것으로 전해짐.

2016. 11. 22.

■ 유엔 北인권보고관 “北당국과 연락채널 마련에 노력할 것”(연합뉴스)

- 지난 16일 방한한 키타나 보고관은 출국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과 북한과의 대화 유지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다만 유엔에 상주하는 북한 대표단과의 연락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들과 연락을 계속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취임 초기 방북을 시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키타나 보고관은 당장의 방북은 어렵다고 보고 북한 당국과의 연락 채널 마련에 주력하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임.

2016. 11. 23.

■ “국제가톨릭기구, 北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으로 지목”(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는 로마 가톨릭 교황청 직속기구인 ‘국제 가톨릭 사목 원조기구’가 발표한 ‘2016 세계 종교자유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이라고 전함.
- 단체는 북한 종교 실태를 보고서 4장에 걸쳐 다루며 “(북한이) 여전히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함.
- 보고서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유엔 특사 “킬링필드’ 전범 단죄는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연합뉴스)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셰퍼 특사는 “북한 지도부는 오늘 이곳(ECCC)에서 일어

- 난 일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법재판은 후퇴하지 않고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함.
- ECCCC는 이날 최소 170만 명이 희생된 킬링필드의 책임자인 누온 체아(90) 전 공산당 부서기장과 키우 삼판(85) 전 국가주석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종신형을 선고함.
 -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2016. 11. 24.

■ **엠네스티 “북한, 정치범수용소 계속 운영”(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22일 북한의 15호 요덕관리소와 25호 청진관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단체는 지난 5월과 8월에 입수한 위성사진을 이용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두 관리소가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다고 설명함.
- 그러면서, 25호 청진관리소의 경우 지난 8월 위성사진에서 경비초소가 6개 신설돼 41개에서 47개로 늘었고, 3개 도로가광산 지역까지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016. 11. 25.

■ **北인권 유엔전문가그룹 “방북요청에 대한 北답변 기다린다”(연합뉴스)**

- 25일까지 일정으로 방한 중인 후세인 변호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 유엔북한인권 사무소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임명된 직후부터 북한 당국과 접촉해 방문 요청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거듭 방북 기회를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 후세인 변호사는 “우리는 북한을 방문해 (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아울러 북한에 어떠한 법적 틀이 있으며 이를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살피고 싶다”는 바람을 밝힘.
- 후세인 변호사는 이어 독립전문가그룹의 주요 활동으로는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위한 적절한 접근법 모색과 책임 규명의 실현 가능한 메커니즘을 고안해 내는 것을 꼽음.

■ **탈북자 박지현씨 “끓은 상처 터지듯 인권탄압 북한에 변화를 것”(연합뉴스)**

- “상처도 끓으면 터집니다. 김정은 정권이 지금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지만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북한 주민의 작은 바람이 큰 태풍이 돼 북한을 바꿀 것입니다.”
- 영국 내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활동가인 박지현 씨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립동양언어대학(INALCO)에서 열린 ‘북한 정부의 인권기록’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탄압 실상을 증언하며 이같이 말함.
- 이날 행사에는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전문가인 존 닐슨-라이트와 프랑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연구해 온 역사학자인 피에르 리굴로 사회사연구소(Institut d'Histoire Sociale) 소장, 앙투안 봉다즈 프랑스 아시아 센터 연구원 등 프랑스와 영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참석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11. 19.

■ **北서 어린이 강제노동 심각...건설현장 돌개기에 10代 투입(연합뉴스)**

- 북한 어린이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조직적이고 심각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함.
- 북한의 고아 구출 활동을 하는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이 매체에 “북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함.
- VOA에 따르면 김 목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담은 동영상 공개했고, 동영상에는 10대 아이들이 도로 건설 현장에 나가 돌을 깨는 모습 등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장면이 다수 담긴 것으로 전해짐.

2016. 11. 23.

■ **北, 독일 구호단체에 수해지역 진료소 건립 요청(연합뉴스)**

- 북한에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구호단체 ‘카리타스’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보건성이 ‘홍수로 주택은 물론 학교와 병원 등마저 쓸려갔다’면서 진료소를 지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 연사군 수해지역의 일부 공터를 진료소 건립 예정 부지로 제시하기도 함.

-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최근 해당 부지에 대한 답사를 마친 카리타스 측은 이른 시일 내 건축 자재를 북측에 전달한다는 계획임.

2016. 11. 24.

■ **北 외무성 국장, 스웨덴 대사와 임현수 목사 문제 토의(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국장이 24일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를 만나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의 영사 접촉 문제를 토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유럽2국 국장은 24일 주조(북한) 스웨리에(스웨덴) 대사를 만나 쌍무관계 문제와 반공화국 범죄 행위로 무기로동(노동) 교화형을 받고 현재 교화 중에 있는 캐나다(캐나다) 국민 림현수(임현수)에 대한 영사(영사) 접촉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주장함.
- 외무성 국장은 스웨덴 대사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에 대한 영사 면회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공화국의 최고 존엄에 감히 도전해 나선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의 적대 행위에 대처하여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있다는 공화국 정부의 원칙적 립장(입장)에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2016. 11. 25.

■ **탈북시도 주민 2명, 두만강서 국경경비병 총격에 사망(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에서 최근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 2명이 두만강에서 국경경비병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25일 보도함.
- 함경북도 소식통은 이 매체에 "이달 중순 남양 지역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두만강에 들어섰던 주민 2명이 국경경비병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경비병들은 예전에는 두만강으로 도주하는 주민을 발견할 경우 3차례 경고를 하고 사격을 하도록 제한받았지만 이달 초부터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로 탈북자 발견 시 즉시 사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11. 23.

■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 3명 추가확인…총 19명으로 늘어(연합뉴스)

-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TV는 23일 ‘목메여 부르며 달려와 안긴 어머니 품’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자가 재입북 탈북자들과 좌담회를 하는 영상을 게재함.
- 영상에 등장한 인물은 사회자를 제외하고 박경은(64), 강철우(40), 김연주(22. 여), 김영희(36.여), 김만복(63), 채은철(29) 등 6명임.
- 영상에서 박경은은 지난 6월, 강철우와 김연주는 지난 9월 각각 재입북했다고 자신을 소개함.

5. 대북지원

2016. 11. 19.

■ 국제사회, 北 수해복구에 1천300만 달러 지원(연합뉴스)

- 함경북도 수해복구를 위해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지원한 금액이 총 1천300만 달러로 집계됐고, 스위스와 중국, 러시아, 스웨덴, 태국, 덴마크 등 6개국이 지원에 동참했다고 방송은 전함.
-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은 긴급대응 지원금 명목으로 북한에 상주하는 5개 유엔기구에 51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는 전체 지원 금액의 40% 수준이고 국가별로는 스위스 정부가 36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중국이 300만 달러, 스웨덴이 47만 달러, 태국 30만 달러, 덴마크 23만7천 달러 순이었음.
- 또 전체 모금액의 29%인 370만 달러는 식량 등 영양지원 사업에 투입됐으며, 이 밖에 취약계층에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보건 사업에 150만 달러, 식수 위생 사업에 145만 달러가 각각 소요됐다고 방송은 설명함.

2016. 11. 22.

■ 프랑스 NGO, 북한서 15억원 규모 새 영양개선 사업(연합뉴스)

- 프랑스 구호단체(NGO)가 지난 9월부터 황해북도 소흥시 주민들의 영양개선을 위해 채소 재배사업을 시작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함.
- 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는 최근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서 “유럽연합으로부터 120만유로(약 15억원)를 지원받아 2019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 이 단체는 이번 사업으로 탁아소와 유치원 어린이 2천300여명을 비롯해 취약계층 4만3천여명에게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채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유진벨재단 3주간 방북...12개 결핵센터 모두 방문 예정(연합뉴스)**

- 재단은 “방북 대표단은 북한에 있는 사업장인 12개 다제내성 결핵센터를 모두 방문할 예정”이라며 “각 센터에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를 모두 만나 새로운 환자 등록에 필요한 여러 검사를 직접 주관할 것”이라고 전함.
- 대표단은 앞으로 3주에 걸쳐 결핵센터를 방문한 뒤 다음 달 13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재단은 덧붙임.
- 앞서 재단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다제내성결핵 환자 약 1천500명분의 치료약을 북한에 전달했던 바 있음.